

기고

박상래 담양소방서 서장



작은 실천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책임진다

2012년 2월 처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대비 27.8%, 사망자는 186명으로 55%를 차지한다.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전체화재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택에서 유독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

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에서 해답을 찾아본다. 대체로 일반 건물에서는 소방시설이 법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된 단독주택에서는 별다른 소방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소화기,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는 주택 가구가 많다. 1977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는 설치 이전과 비교해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고, 영국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빠른 대피 및 초기

진화가 가능하여 사망률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거주 가정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거나 진압함으로써 피해를 줄인 사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발생하여 현재는 이전 대비 사망자 비율이 10% 감소되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

다. 다만, 화재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의식”이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와 소화기는 우리 집에 소방차 한 대, 베테랑 소방관 한 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재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와 소화기는 생각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작은 실천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이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기고

‘전동킥보드’ 처벌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조기정착 시급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수가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등의 PM 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목)부터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한다. PM 사고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무면허운전 금지 ▲약물·과로 등 운전금지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통행 금지)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장치 작동의무 ▲승차 정원 준수 의무(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등 1인) ▲음주운전 금지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등으로, 위반 항목에 따라 과태료 2만원에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

스템에 따르면 PM교통사고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2017년 117건 기록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 2018년 225건·2019년 447건으로 최근 3년간 약 4배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2018년 242명·2019년 481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월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으로 개인이 소유한 PM을 합치면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에선 새 전동킥보드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 강화와 병행, 단속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어 PM 이용자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완전한 숙지로 PM 관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개정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적정 취지를 이해하고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류서범/함평경찰서교통관리계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 쓸쓸한 소외계층에 관심을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이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가 급속화 되면서 매년 도시와 농촌에서 돌보는 가족없는 외로운 독거세대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812만 5,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5.7%에 이르고 있고 5년 후인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

들이 각종 질환과 생활고를 겪으면서 홀로 힘들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들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형편 또한 그리 녹록치 않아 자립을 하지 못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의지할 곳 없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쓸쓸함이 더하고 있다. 물론 여러 사회복지단체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나마 코로나 19 영향 탓에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정이 그리운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독거노인

과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웃의 따뜻한 사랑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보살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거노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다. 지금 이순간 우리 주변에 독거세

대는 없는지를 살펴 찾아 보고 한마디 안부라도 묻고 말벗이라도 되어주는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보자.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의 손길을 내밀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이 관심 밖에 놓이는 놓이는 일은 없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욕심일까. 우리 누구나 홀로 거주하며 외롭게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의 소외되고 버림받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을 한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5월이 됐으면 한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 rate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